
UGI시 발포제 양에 따른 이중 조영 효과 관찰

신흥대학 방사선과

김형진, 권오창, 김동욱, 문정규, 김윤정

목 적 : 위장 조영 검사 시 고농도 저점도의 황산바륨과 발포제를 복용하여 발생한 가스를 이용하여 위장내벽의 관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발포제의 양을 달리하여 최적의 이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 : 인체 상복부 팬텀(Liqui-phil phantom : G-I phantom)을 이용하여 바륨과 발포제량을 변화시켜 투여하고 영상을 비교 평가하였다.

150 %w/v 황산바륨의 양을 각각 90, 100, 110 ml로 조정하고 발포제의 양을 각각 3, 4, 5 g으로 구분하여 투여하였다. 그리고 얻어진 각각의 영상을 비교하여 최적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비교하였다.

결 과 : 황산바륨 150%w/v의 90, 100, 110 ml의 각각의 발포제의 양에 따른 영상을 평가한 결과 발포제를 넣었을 때 팬텀의 위장이 충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. 황산바륨의 양이 팬텀위장에 비해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90, 100, 110 ml 모두 발포제의 양이 4 g일 때 팬텀의 위장이 알맞게 충만 되어 가장 선예한 영상을 나타냈다.

결 론 : 위장 검사 중 이중 조영법에서 황산바륨의 양에 따라 유사한 차이가 있었으나 발포제의 양은 4 g일 때가 가장 최적의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.